

투데이 칼럼

MR 기술의 평양 여행

**대**부분 학생 시절에 수학 여행 다녀온 기억들이 있다. 20여 년 전에는 '경주'가 많이 생각난다고 한다. 교과서로만 보던 신라 유적과 문화재를 직접 볼 수 있어서 참 좋았다.

그런데 북한으로 수학여행을 간다면 어디를 가고 싶은지 궁금하다. 수도인 평양으로 떠나고 싶은 사람이 많을 것 같다. 최근 북한 내부에서 '평양' 당일치기 관광이 인기라는 소식도 들린다.

여름철에 피서객들이 많이 몰린다는 대동강변 문수 물놀이장에 어린 자녀들과 함께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우리 물놀이 시설인 워터파크와 비교해 보면 어떻게 궁금하기도 하다.

요즘엔 최신 IT 기술을 활용해서 평양을 여행해 볼 수도 있다. 최신 MR 기술, 즉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해 통일교육을 진행하는 현상이 있다. 이곳에는 아주 특별한 수업을 함께 할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있다.

이들은 북한과 통일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 왜 북한이 통일을 거절하는지 의문이다. 이런 의문점에 당황스러웠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6학년 학생들은 북한의 수도인 평양으로 여행을 떠나게 된다.

신기술이 접목된 교육 현장의 모



정복규  
논설위원

습을 차례대로 만나볼 수 있다. '평양 여행'을 위해 학생들이 출발역으로 갔다.

바로 수업 준비가 한창인 교실이다. 통일교육원이 지난 5개월 동안 만든 교육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위해 여행을 접목했다. 화면을 통해 MR 기술이 적용된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다. MR은 가상현실 기술인 VR과 증강현실 기술인 AR을 접목한 혼합현실 기술을 일컫는다.

센터에서 아이들이 움직이는 움직임을 인식해서 내가 진짜 운동을 해서 직접 평양으로 간다. 수업의 첫 단계는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통일된 미래에 서울에서 유럽까지 기차같이 이어졌다는 설정이다. 일단 친구들이랑 평양 가서 평양 냉면 먹고 기차표 끊고 런던 갔다가 울란바토르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대여섯 명의 학생이 팀을 이뤄, 오늘의 여행지, 평양으로 떠난다. 물론 각자 역할을 분담한다. 두 명이 운전대 조정을 맡고 나머지 친구들이 공을 던져 장애물을 제거하면서 평양역에 도착한다.

그리고 평양 관광에 나선다. 북한의 국보이자, 고구려 시조 주몽의 무덤으로 알려진 동명왕릉에 이어 여름철 평양 명소인 문수 물놀이장에도 가본다. 11만 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하는 대동강변의 놀이도 경기장도 폐놓을 수 없는 명소다.

여기저기 돌아보던 학생들은 평양 주민들의 일상도 궁금해했다. 특별한 여행을 통해서 학생들은 조금 더 재미있고 활기차게 북한을 경험해 볼 수 있었다.

과연 학생들은 평양이 어떠한 모습으로 남게 될까.

그리고 학생들은 북한에 어떠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을까 등이 궁

급하다. '평양 여행' 열차에서 내리자 교실 밖에선 북한 음식 이름을 알아보는 게임이 한창이다.

음식을 설명하며 북한말 카드를 가진 친구를 가리키는 방식이다.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남과 북의 서로 달라진 언어를 체험하게 된다.

학생들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왔을 때 의사소통이 아예 안 되던 안 되니까 어느 정도는 배워야 해요."라고 말한다.

통일교육 수업엔 6학년 학생들이 함께했는데, 참여 열기가 사뭇 다르다고 한다.

교사는 "아이들에게 어렵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활동이나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라고 설명한다.

통일과 북한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도 조금 의외까지 않을까 판단된다. 학생들은 "첫 번째는 세계여행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북장하게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유럽 먼 곳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했다.

사설

전북 도내 교권 추락

전북 도내 일선 학교에서 벌어지는 교권 추락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교사들의 교통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당한 교육 지도와의 경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아동 학대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신고만으로도 직위해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전북교총과 교사 노조, 유치원 원장, 초등 교장협의회 등 교원단체가 교권 회복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당한 교육 활동과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로 신고돼 수많은 피해 교사가 양산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권 추락의 현실과 학교에 나타나고 있는 교육방임 현상은 심각하다.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이 담임 교사를 정서 학대로 신고했다. 고부갈 쏠싸움을 하던 학생들을 훈육하던 교사는 학부모들

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다. 수업시간에 딴 짓을 한 학생을 지도한 교사 역시 비속어를 썼다는 이유로 학대 가해자가 됐다. 지난 4월 교육인권센터 설문에서는 설문에 응한 교사 절반이 교권 침해를 경험했고 10%는 관련 경험이 10차례를 넘는다고 답했다.

전북교총으로 오는 상담 건수만 따지면 한 달에도 10건이 상이다. 교사들은 정상적인 생활지도가 어렵다며 결국 교육적 방임 현상에 학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초중교육법 시행령 안에 아동학대에 해당되지 않는 구체적인 생활지도 내용을 명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헤마다 증가하는 교권 침해로부터 교사를 지켜줄 법과 제도가 뒤따르지 못하면서 현장의 불만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법령을 바꾸어야 한다. 정부 차원의 교육개혁이 절실하다.

전북여고 개교 40주년

전북여고가 개교 40주년을 맞았다. 전북여고 총동문회는 '개교 40주년' 기념행사를 지난 5월 성황리에 열었다. 행사에는 윤여용 이사장과 서거석 전북교육감 및 동문인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을 비롯 퇴임 교사와 현직 교사·학생회 대표·동문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여고 우익제 교장은 이날 행사에서 튀르키예 이재민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전달했다. 또한 모교를 위해 지속적으로 장학 사업을 진행해온 박예나 육육걸즈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특히 '영상으로 만나는 40년'을 통해 동문들은 짧은 날의 뿌리이자 버팀목이었던 우석여고·전북여고, 시절을 회상했다. '전북여고는 1983년 3월 '전주우석여자고등학교'로 개교했다. 그 뒤 2006년 3월 '전북여자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됐다. 을 1월까지 총 15,358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인성과 실

력을 겸비한 미래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전북여고의 모든 교사들은 제자들이 3년 동안 최대한 능력을 발휘해 인재로 성장하도록 노력해 왔다. 모닥불처럼, 타고 있는 나무와 함께 있으면 잘 타지 않던 나무도 잘 타게 된다.

인간의 삶도 비슷해 선·후배 동문들이 협력하면 각자 꿈과 희망을 향해 아름답게 피어날 것이다. 전북여고 학교법인 훈산학원(訓山學園)의 건학이념은 △도덕인(道徳人) △실력인(實力人) △창조인(創造人)을 지향하고 있다.

이번 행사가 동문들 간 친목과 단합을 다지고 자랑스러운 전북여고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가고 싶은 학교·꿈이 있는 학교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기대한다. 건학이념을 근간으로 한 전북여고의 힘찬 발전을 응원한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세계 해양의 날' 바다를 안아주자



세계 해양의 날인 지난 8일(현지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해변에서 사람들이 '바다를 안아주자'는 상징적인 의미로 서로 손을 잡고 인간 띠를 만들고 있다. 루트 브라질이라는 환경단체는 해양 오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댓 허그'(That Hug) 행사를 열고 사람들의 참가를 촉구했다.

킬라우에아 화산 폭발 보러 모여든 관광객들



지난 7일(현지시각) 미 하와이주 빅아일랜드에 킬라우에아 화산의 폭발을 보려는 관광객들이 모여있다. 하와이 관광 당국은 킬라우에아 화산의 분출을 보기 위해 몰려드는 관광객들에게 안전을 위한 질서와 예절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